



〈Destined to XXXX〉

운명 같은 사랑을, 믿어?

〈개요〉

이곳은 파리의 어느 동네. 집집마다 끊임없이 사랑 노래가 흘러나오고, 거리에는 온통 만만 지 하루 만에 고백하는 커플 뿐. 심지어 넘어지면 어디선가 익숙한 방청객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동네가 통째로 로맨틱 코미디 세계관에 빠졌다! 그렇다면 이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지? 밀도 끝도 없는 로코물로부터 도시를 구하기 위해, 마법사들이 출동했다!

〈시나리오 정보〉

계제: 5

인원: 3인

사이클/리미트: 3사이클(9리미트)

사용 데이터: 마기카로기아 대형판, 황혼선서

장르: 로맨스 코미디 뮤지컬

〈주의사항〉

세상이 로맨틱해집니다. 보케와 츳코미 마법사들을 함께 데려가면 재밌을지도 모릅니다.
가벼운 캐릭터 백스토토리의 개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존재합니다.

w. PENTO

작성 일시 2024.04.02.

!이하의 내용은 GM 정보입니다!

〈배경〉

대법전 소속의 몽마 〈라플라스의 낭만〉 사샤에게는 유일한 연애 앵커이자 오랜 연인인 우자 안나마리가 있었습니다. 마법사로서 활약하며 사샤의 앵커인 안나마리에게 몇 번씩 운명변전이 발생했고, 사샤는 사랑하는 연인을 지키기 위해 그 때마다 운명에 개입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껏 안나마리를 지킬 수 있었지만, 그는 사샤와 있었던 모든 추억과 사샤의 존재마저 잊어버리기를 몇 번. 그럼에도 두 사람이 다시 만날 때마다 먼저 상대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은 안나마리였습니다. 그만큼 두 명은 서로의 영혼에 강한 끌림을 느끼는 운명, 즉 천생연분을 가지고 있었고 사샤는 앞으로도 두 사람의 사이가 변치 않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샤가 소멸의 위기에 놓였고, 그는 죽음의 목전에서 ‘사랑받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운명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는 강한 열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을 품은 채 그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금서 〈운명론〉이 태어났습니다. 사샤의 모든 기억과 성격을 그대로 가진 그것은 곧바로 안나마리에게 달려가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운명’을 재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마법사가 금서화한다는 것은 곧 영혼 자체가 다른 무언가가 된다는 것이므로, 〈운명론〉과 안나마리 간에는 그 어떤 운명의 실마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론〉은 안나마리를 여전히 마음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바로 그를 자신의 앵커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안나마리는 자신의 운명의 상대인 사샤가 아닌 금서에게는 그 어떤 끌림도 느끼지 못했고, 수많은 〈운명론〉의 애정 공세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금서는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를 사랑해줘, 안네. 우리는 그런 운명이잖아.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야 마는...’ 슬픔에 잠긴 금서의 힘이 파리 전역을 덮어쓰고, 두 사람이 좋아하던 로맨스 코미디 장르의 모습으로 탈바꿈됩니다. 오직 사랑하는 한 명만을 위한 촌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장면〉

현재의 파리는 하나의 독립된 이경으로 떨어져나오기 직전. 이경으로 취급하며, 별도의 〈로맨티카 장면 표〉를 사용합니다. 각 장면 표에 딸린 낭만밀도는 메인 페이지 쪽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봉토로 빙의한 단장 〈만물〉을 회수하면 이경화는 멈추지만, 금서를 회수하기 전까지 로맨스 코미디 뮤지컬의 분위기는 계속됩니다. BGM과 RP 등을 적극 동원하여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계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각차단> <불간섭>
<인과불변> <마도서권>

로맨티카 장면 표

2D6	내용
2	도심 한가운데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휘황찬란한 별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거리는 온통 짹짹 손을 잡고 하늘의 별을 세고 있다. 별 마소 1개가 발생한다. 낭만밀도+3
3	월월컹컹. 대형견을 산책시키며 모퉁이를 돌던 견주가 댄디한 미인과 정면으로 충돌하더니 그대로 허리를 붙잡고 포즈를 취한다. 짐승 마소 1개가 발생한다. 낭만밀도+2
4	후줄근한 옷은 아무도 입지 않는 세계관에 떨어진 것만 같다. 거리의 모든 이가 필살 데이트 룩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빼입은 채다. 물론... 우리도. 낭만밀도+2
5	파스텔 톤으로 색칠된 도로를 웨딩카 두 대가 풍선을 무더기로 훑날리며 질주한다. 저거 속도위반 아니야? 힘 마소 1개가 발생한다. 낭만밀도+1
6	극장가를 살펴도, 서점을 살펴도, 있는 것이라곤 온통 사랑 관련 이야기뿐. 슬슬 질린다... 낭만밀도+1
7	화려한 쇼윈도 너머를 바라보고 있으면, 유리에 비친 것은 당신의 모습이 아닌 아는 이의 얼굴이다. 무작위로 특기 하나를 골라서 판정한다. 성공하면 아무거나 마소가 1점 발생한다. 실패하면 「운명 변전 표」를 사용해서 정한 불행이 목표에게 닥친다. 낭만밀도+3
8	비가 쏟아지면 거리는 딱 두 부류로 나뉜다. 코트를 벗어 파트너와 나눠 쓰는 사람들, 그리고 온갖 원색 우산들을 뽐내며 거리를 걷는 사람들. 낭만밀도+1
9	다른 PC와 순간 손끝이 스치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행인 앙상블의 분위기를 한껏 돋우는 코러스가 치고 들어온다. 나는 이런 분위기 타고 싶지 않아 PC랑!! 노래 마소 1개가 발생한다. 낭만밀도+1
10	잠깐. 자꾸 시야 언저리에 훑날리는 것... 꽃잎이 맞나? 어디선가 꽃잎 이펙트가 무한리필되고 있다. 생화 에디션. 쓰레기 처리 보장 없음. 낭만밀도+2

11	거리의 그 누구도 무표정의 현대인 얼굴을 하고 있지 않다. 웃거나, 화내거나, 울거나, 즐겁거나... 감정의 급류가 무겁다. 꿈 마소 1개가 발생한다. 낭만밀도+2
12	웅성거리는 인파 한가운데에서 두 연인이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사랑싸움을 하고 있다. 어어, 저러다 얼굴에 커피 뿌리겠어! 어둠 마소 1개가 발생한다. 낭만밀도+3

〈NPC 및 에너미 데이터〉

안나마리

30대로, 잡지사에서 편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중하고 차분한 한편, 아니다 생각하는 것에는 단호한 편. 로맨스 코미디 장르의 주인공이라고 보기 힘든 성격의 소유자로 ‘현재 연애 생각 없음’. 사샤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꺾고 있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신기해하지만, 딱 거기까지. 사샤가 그를 부르던 애칭은 ‘안네’. 쏟아지는 애정은 조금 부담스러워 합니다. 소원은 ‘어지러운 삶은 이제 바라지 않아.’

〈라플라스의 낭만〉 사샤

쾌활하고 낭만적이고 사람 좋지만, 어딘가 조금 덜렁거리는 성격의 몽마. 대법전에서는 문호로 일했습니다. PC들과는 몇 번 임무를 함께한 적이 있는 구면이나 본 세션의 시점에서는 얼마 전 소멸 및 금서화가 이루어졌으므로 PC들은 사샤를 바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안나마리와는 서로 강한 운명으로 이어져 있던 소위 ‘운명의 상대’였습니다. 연인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으며, 그 마음은 지금도...

안드레아

30살, 안나마리의 대학교 동창이자 옆집 이웃...이라는 설정이지만 사실은 단장 〈인과〉입니다. 안나마리는 마력에 의해 안드레아의 설정값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중입니다. 흔히 로맨스 코미디물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절친’ 포지션으로, 안나마리가 사샤와 만나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야 당연합니다. 이 세계는 두 사람이 사랑하기 위해 개조되었으니까요.

금서 〈운명론〉

사샤가 금서화한 모습. 얼핏 보아서는 마법사였을 적의 본인과 거의 다를 것이 없어, 그 영혼을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에야 그가 사악한 마력을 품고 태어난 금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명에 절박하게 매달립니다. 비록 그것이 더는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되었더라도.

단장 <만물> 봉토

공격력 5 방어력 5 근원력 6 / 마력 6(-1) 빙의심도 1

영역: 짐승 / 특기: <에로스> <사랑>

장서: <가세> <영혼 속박<사랑>> <욕정> <매료>

단장 <인과>

공격력 5 방어력 6 근원력 6 / 마력 10 빙의심도 0

영역: 힘 / 특기: <파문> <시간>

장서: <마신 소환<시간>> <불꽃> <조류> <역전<시간>>

단장 <필연>

공격력 6 방어력 5 근원력 5 / 마력 9(-1) 빙의심도 0

영역: 노래 / 특기: <마음>

장서: <마신 소환<마음>> <추신> <숙명의 불길> <도망>

- 금서 및 단장 <필연>은 안나마리를 3점 앵커로 두고 있습니다. 숙명의 불길 사용 시 참고하세요.

<도입 페이지>

1. <주문은 낭만입니까?>

파리에 벌어진 마법 재액으로 프랑스가 난리법석입니다. PC들은 프랑스의 도시 툴루즈의 문호 지부에 모여, 문호의 브리핑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옆 동네 파리 사람들이 다들 로맨스에 미쳐버렸다지 뭐예요!"

"처음 본 사람과 냉큼 탭댄스를 추더니 내일 커플링을 맞추러 가질 않나, 풍경마저 온통 인스*그램 필터라도 낀 것처럼 반짝반짝 뽀샤시한 게... 이거, 아무래도 마법재액 같아요!"

문호의 마법사의 태도에는 제법 호들갑도 섞여 있지만, 그 내용만큼은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유능한 5계제 마법사 여러분'에게 바로 출동해달라 부탁드립니다.

"열차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지부의 뒷문에서 구두를 세 번 구르고 문을 열면 그곳이 곧 파리의 중심가 한가운데!"

준비가 되면 출발해달라는 말과 함께 그는 테이블에 있던 과자를 마저 싸서 PC들에게 챙겨줍니다. 행운을 빈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 분과회를 결성하고 마력결정을 진행합니다. 예언이 있다면 이 타이밍에 해주세요.

2. <파리에서 전해 드립니다. 사랑의 행방은...>

PC들이 마법문을 넘어 파리에 도착하면...

까악! 웨딩카 두 대가 서로 카레이싱을 하고 있어! 어째서 사람들이 온통 ‘필살 데이트 파트너절대함락 룩’ 아니면 ‘상견례 이거라면 프리패스 룩’을 하고 거리를 걷고 있는 거야? 얼이 빠져 있던 중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새 동화(속주의 그것 맞습니다.)가 진행되었는지 PC들도 그다지 다르지 않은 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파리의 공작새들 사이에서 살아남기란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가게는 무조건 2인 입장. 커플에게는 특별 할인가로 제공. 시야 바깥쪽에 왜 꽃잎이 자꾸 펄펄 터져대는 거죠? 잠깐, 그거 그대로 바닥에 쌓여서 쓰레기가 되고 있잖아! (추가로 하고 싶은 묘사가 있다면 잔뜩 해주세요.)

이대로는 안됩니다. 우리도 완전히 저 풍경 속의 일부가 되어버리기 전에 이 재액을 해결해야만 해!

- HO【사랑에 빠진 파리】공개.

<메인 페이지>

- 메인 페이지 중 낭만밀도 룰을 적용해주세요. 장면을 개시할 때마다 장면 플레이어는 장면표에 따른 낭만밀도가 상승합니다. PC마다 개별로 상승하는 수치이며, 낭만밀도가 6 이상이면 임의의 1명 대상으로 연애 속성의 운명점을 1점 취득하거나 기존 앵커 1명의 속성을 연애로 바꾸고 운명점을 1점 상승시킵니다. 새롭게 운명점을 취득하는 경우 대상은 다른 PC거나 NPC일 수도 있고, 갑자기 만들어낸 모브여도 무관합니다. 낭만밀도가 축적될 시 관련 RP를 진행하면 재밌을지도 모릅니다. 로맨스의 토네이도에 휩쓸려봅시다.
- 데이트 중, 사샤는 익숙하게 안나마리의 취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익숙하게 안나마리에 대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안나마리는 그러한 사샤에게 은근히 부담스러운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RP 시 참고하세요.
- HO 공개 타이밍:
 - 도입 페이지:【사랑에 빠진 파리】
 - 마스터 장면 <사랑은 운명처럼>:【주연: 안나마리】【조연: 안드레아】【엑스트라: 앙상블】
 - 마스터 장면 <운명은 장난처럼>:【주연(2): 사샤】
 - 마스터 장면 <추억은 거품처럼>:【'운명'】

〈마스터 장면〉

1. 〈사랑은 운명처럼〉

조건: 【사랑에 빠진 파리】의 비밀이 공개된다.

지금의 파리는 그야말로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의 클라이맥스. 사랑과 춤과 음악이 흐르는 뮤지컬. 그리고 갓 무대 위에 오른 세 명의 신입 배우들.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춤추고 노래하고 사랑합시다! 그것이야말로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

그리고 이곳이 무대라면, 배우 또한 갖춰져 있는 것이 인지상정. 시야에 거리를 걷는 누군가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옆에 ‘안나마리/32세. 현재 연애 생각 없음!’ 하는 큼지막한 문구가 화면 가득 광! 하고 박혔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바로 쫓아가는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네~그래서 오늘 데이트하러 갈 거냐니까? 나는 그 사람 괜찮아 보이던데~!”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안드레아...”

안드레아라고 불린 사람의 얼굴 옆에도, ‘안드레아/30세. 안나마리의 이웃이자 연애상담 친구!’의 문구가 광!하고 화면을 채웁니다. 느낌이 옵니다. 저 사람들, 분명 요주의 인물들입니다. 원래 로맨스 코미디는 주연급이 아니면 저런 연출 안 해주잖아요?

- 【주연: 안나마리】【조연: 안드레아】【엑스트라: 앙상블】 공개.

2. 〈운명은 장난처럼〉

조건: 【주연: 안나마리】의 비밀이 공개된다.

PC들과 안나마리 앞에 드림카 한 대가 끼익, 하고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 드림카에서 누군가 내립니다.

“오, 안네! 오늘은 데이트 신청, 받아주기로 약속했었지? 시간은 좀 남았지만, 당신이 보고 싶어서 한달음에 달려왔어!”

그는 기막힌 선글라스를 쓰고, 차려입은 데이트룩에 한 손에는 꽃다발, 다른 손에는 풍선을 들고 있습니다. (안드레아를 아직 회수하지 않았다면 호들갑을 떨면서 안나마리 옆에서

사샤에 대한 주접을 떨니다. “그 사람 또 왔네~잘해봐!” 하는 느낌이겠네요.) 화려한 등장에도 안나마리는 그렇게 동요하거나 설렌 표정은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만나주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마치 꿈만 같았어.”

얼굴에 미소가 한가득인 상대에게 안나마리가 덩덤하게 대답합니다.

“사샤 씨, 일찍 오셨네요. 괜찮아요. 어차피 가볍게 만나기로 했던 약속이고...”

“카페를 갔다가 영화관, 다음으로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던가요? 더 시간을 쓸 필요 없이 바로 갈까요.”

사샤라고 불린 상대는 기쁜 듯 웃으며 안나마리를 드림카의 조수석으로 에스코트합니다.

“응! 최고의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두 명은 약속된 데이트를 하러 떠납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느꼈지만, 저 두 사람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 【주연(2): 사샤】 공개.
- 안나마리가 데이트 장소의 정보를 말하고 간 덕에 PC들은 언제든 두 명을 따라가 대화하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

3. <추억은 거품처럼>

조건: 【주연(2): 사샤】의 비밀이 공개된다.

사샤는 안나마리 몰래 PC들에게 윙크하고는, 영화로 신호를 보냅니다.

[아이 참, 한두 번 보는 광경도 아니고~ 아마추어같이 굴지 말고, 데이트 방해는 하지 마!]

그제서야 잊고 있었던 두 사람의 정체에 대한 기억이 물밀 듯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괜찮아.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충분히 시간을, 노력을, 사랑을 들이면... 언제나 그랬듯, 안네는 다시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게 우리의 운명이니까.]

[내 운명의 상대가 안네인 것처럼, 안네의 운명의 상대도 분명 나였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줘.]

그렇게 말을 전한 그는 다시금 눈앞의 데이트 상대에게 집중합니다. 행복해 보이는 얼굴입니다.

- 【'운명'】 공개.
- 【주연: 안나마리】의 두 번째 비밀 공개.
- 이후 PC들이 사샤와 대화할 때에 사샤는 충분히 친근하게 굴지만, PC들에게 존재하던 기억의 공백에 대해 물으면 '데이트에 집중하겠다' 등의 핑계로 애매하게 얼버무리고는 다른 화제로 말을 돌리거나 대화 자체를 회피합니다.

4. <찰나는 영원처럼>

조건: 【'운명'】의 비밀이 공개된다.

PC가 세계를 들여다보는 창구를 통해 두 사람 간의 운명을 살핍니다. 그러나 사샤가 그렇게 주장하던 '운명' 따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 운명의 주인공은 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지금의 '사샤'가 흘리는 마력은 태생부터 사악함을 품은 금서의 것. 그것은 자신이 여전히 '사샤'라고 믿고 있습니다. 비록 더 이상 '마법사'는 아닐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걸요. 그러나 마법사와 금서는 애초에 다른 존재. 그 영혼에 묶인 운명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 필연.

그렇다고 금서를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결핍된 그것은 오직 한 명만을 위한 애정의 덩어리. 이대로는 파리를 그 사랑의 마수로 집어삼켜 끊이지 않는 사랑의 재액에 모두를 질식시키고 말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그 싹을 뽑아야 합니다.

- 【주연(2): 사샤】의 두 번째 비밀 공개.

<클라이맥스 페이지>

단장을 모아 금서를 편찬하면 그것은 요상한 데이트룩이 아닌 우리가 기억하던 사샤의 그 모습 그대로의 형태입니다. 금서가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감쪽같이, 본인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고야 말 운명이었잖아. 사랑받아 마땅한 운명이었잖아. 나는 그대로 여기 있는데, 어째서 나는 너는 ‘내’가 아니야?”

“여전히 이렇게나 사랑하는데, 이제 그의 운명에는 ‘내’가 없는 거야?”

“이런 건... 이런 건 싫어.”

“그저 【운명론】에 매달려 사랑한다고 외치게 해줘.”

언제나의 파리의 풍경이 이어지는 가운데 단 한 사람 어치의 부피만이 비어 있는 주권이 펼쳐집니다. 금서 <운명론>과의 전투에 돌입합니다.

<엔딩 페이지>

금서와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파리에 드리워졌던 금서의 마력이 걷힙니다. 이제 사람들은 길거리를 거닐며 앙상블로 돌림노래를 부르거나, 모퉁이에서 마주친 사람과 사랑을 속삭이거나, 사랑만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여전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그리고 금서가 완전히 봉인되기 직전의 찰나. 무릎을 꿇은 <운명론> 앞에 한 사람의 인영이 달려와 썩습니다. 안나마리입니다. 그는 상대에게 말합니다.

“사샤. 비록 나는 당신의 사랑에 보답할 수 없어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번 생의 우리는 어쩌면 그런 운명이 아닌 거겠죠.”

“그렇지만 당신이 내게 준 사랑이 의미 없었다고는 말하지 않을래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의 반짝임으로 가득해지니까.”

“분명 당신의 삶에도 그렇게 밝게 빛나던 순간이 있었겠죠. 그것은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한 것이어서...”

사샤는 천천히 그렇게 말하는 안나마리의 얼굴을 올려다봅니다. 당장에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얼굴이지만 그는 웃고 있습니다. 안나마리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잊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요. 이번 생은 아니더라도 언젠가의 생에서는 우리, 천생연분의 상대일지도 모르니까. 그때야말로 운명 같은 사랑을 해요.”

“그러면 잘 가요. 오늘 내가 당신을 거절하면 어쩌면 다시는 볼 일 없겠지만, 그래도.”

안나마리는 사샤가 금서라는 사실도, 그가 곧 마법사들에 의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지만, 본능적인 이별을 직감한 듯 말합니다. 사샤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안네, 나의 안네.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렇지만 이번 생의 우리 운명이 이런 형태라면, 그래. 나는 기꺼이, 사랑하는 너를 위해...”

발걸음을 돌려 멀어지는 안나마리의 뒷모습을 사샤가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의 몸이 부서지며 잿가루가 되어 쌓이면 한 권의 책이 그 속에서 형태를 드러냅니다. 금서 회수 임무의 달성입니다. 문호 지부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임무를 무사히 마친 것을 확인했으니 복귀해도 좋다는 내용입니다. 공적은 차후 계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말과 함께. 이후 <운명론>의 처우는 PC들이 자율로 정해주세요. 어떤 방향이든 그는 웃으며 받아들입니다.

<핸드아웃>

사랑에 빠진 파리	비밀
사랑에 퐁당 젖어버린 도시. 거리는 사랑으로 엉망진창. 이대로라면 우리 모두 로맨스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아!	이것이 로맨스 코미디, 사랑과 춤과 음악이 흐르는 뮤지컬. 무대 위에 오른 이상 당신 또한 한 명의 배우. 춤추고, 노래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삶 그 자체!
주연: 안나마리	비밀
아무리 봐도 전형적인 로맨스 코미디의 주인공처럼 보이지 않는 평범한 30대 여성. 현재 파리에 흘러넘치는 로맨스 무드에 섞여들지 못한 유일한 사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	그는 다른 우자와는 다른 【일반인】 (기본 룰북 176p 참조, 관련 효과를 적용합니다.). 덕분에 이 혼란스러운 사태 와중에도 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요새 고민거리는 자신에게 한눈에 반해 매일같이

	사랑을 읊으러 찾아오는 청년. 싫은 건 아닌데, 어쩐지 마음이 가지 않아...
	비밀(2)
	몽마 사샤의 유일무이한 연애 앵커이자 사랑을 나눈 연인. 사샤가 평소에도 하도 애인 자랑을 하고 다닌 탓에 PC 또한 그를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었다. ... 그렇지만 왜 방금까지는 깜빡 잊고 있었지? 이상하다.
조연: 안드레아	비밀
안나마리의 옆 플랫에 머무는 친절하고 오지랖 넓은 이웃이자 대학생 때부터의 절친. 최근 안나마리에게 쏟아지는 열렬한 구애에 대한 안나마리의 최고의 상담 상대.	단장 <인과>가 사람의 형태를 취한 모습. 안나마리의 대학교 친구라는 사실도, 옆집 이웃이라는 사실도 새빨간 거짓말. 그의 사랑을 부추긴다. 첫눈에 사랑에 빠지다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니. 얼마나 운명 같은 일인지!
엑스트라: 앙상블	비밀
거리의 모두가 군무를 출 줄 안다. 노래도 잘 부른다. 표정은 또 얼마나 다양한지!	단장 <만물>이 파리 전역을 봉토로 삼아 일대의 주민을 일종의 몽유병 상태로 만들었다. 파리는 그들에게 넘쳐흐른 꿈의 풍경에 의해 새로운 이경으로 발돋움하기 직전이다.
주연(2): 사샤	비밀
요즘 들어 매일같이 안나마리에게 구애를 하러 찾아오는 이. 그를 볼 때마다 헤벌쭙해지는 게 정말로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	마법사 <라플라스의 낭만>. 문호의 몽마로, PC들과도 분과회로 몇 번이나 임무를 나간 적이 있는 사이. 사샤가 사고를 칠 때마다 운명의 개입으로 사샤를 잊어버리는 안나마리는 언제나 몇 번이고 다시 사샤와

	<p>사랑에 빠지고는 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사고를 친 모양인데. ... 그렇지만 왜 방금까지는 깜빡 잊고 있었지? 이상하다.</p>
	<p>비밀(2)</p>
	<p>〈라플라스의 낭만〉이 소멸하기 직전 강렬히 바랐던 마음에 의해 금서화한 모습. “사랑받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너라면 이런 나라도 분명, 운명 같은 나의 사랑이여...” 그러나 본질이 달라진 ‘것’은 주연의 자격을 박탈당했다. 안나마리는 그에게 끌림을 느끼지 못한다. 그의 구애가 그저 괴롭다. 금서는 자신이 금서라는 자각도 없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단장으로 쪼개어, 현재 ‘사샤’의 모습을 한 것은 단장 〈필연〉.</p>
<p>‘운명’</p>	<p>비밀</p>
<p>사샤는 말한다. “몇 번이고 나를 찾아냈어. 나를 사랑해줬어. 내가 사랑하는 그이가 나의 운명인 것처럼, 나 또한 그이의 운명인 거야...” 우리가 기어코 사랑하고야 말 운명이라면, 몇 번이고, 어디서든, 우리가 누구든, 우리는 반드시...</p> <p>정보의 열쇠: 혼의 특기</p>	<p>사샤의 영혼과 안나마리의 영혼 사이에 있어야 할 맺음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매듭을 묶어야 할 영혼이 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에.</p>

〈조킹&기타 정보〉

- 세션 중 라라랜드의 **ost**를 많이 틀었습니다. 로맨틱한 상황에 맞춰 치고 들어올 필살 브금 같은 것을 미리 뽑아두시면 즐거울지도 모릅니다. (추천: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
- 안나마리가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NPC**들에 대해서 정해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자유롭게 정해주세요.

〈후기〉

필살 로코를 하겠다고 쓴 건데 사기치지 말라고 사기꾼이라는 욕을 먹었습니다. 전체적인 토대 자체는 3년 전부터 생각해왔던 것인데 이번 기회에 시나리오의 형태로 완성할 수 있어서 기뻐요. 운명 같은 사랑이라는 게 진짜 존재할까요? 시나리오에서는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을 그렸습니다. (테플에서 몽마 오면 죽는 시날이라는 말을 들어서 몽마시날이라고 불러도 되나 싶네요...) 안나마리는 아마 얼마 있지 않아 사샤를 잊고 잘 살 거예요. 테플에서 코미디가 대체 어디 있느냐고 욕을 먹어서... 그렇지만... 다 끝나고 보면 즐거웠던 기억만 남으니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로코에 대한 **DB**가 많이 부족하지만 힘내봤습니다!!!(제 마음속 최고의 로코는 닥터후라서...) 잘 부탁드립니다!